**다니엘 다르코 박사, 감옥서신, 세션 17,**

**Philemon**© 2024 Dan Darko 및 Ted Hildebrandt

감옥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빌레몬서에 대한 세션 17입니다.

감옥서신에 대한 성경 연구 강의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콜로새서를 다루었고, 이제 빌레몬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매우 흥미로운 책입니다. 단 한 장입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이 재미 삼아 빌레몬서를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빌레몬서를 공부할 시간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헌신의 시간이라도 빌레몬서를 읽을 시간을 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빌레몬에 대한 설교를 했는지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지만 편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 편지를 생각하면서 현대 학계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현대적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날짜와 저자입니다. 우리는 이 특정 강의 시리즈를 감옥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강의의 맨 처음에 저는 이 감옥 서신 모음집에 있는 몇몇 책이 학자들에 의해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고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두드러진 책 두 권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이 연구 시리즈에서 살펴보는 감옥 서신 모음집에서 논란이 없는 두 권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입니다.

원하신다면 PMP라고 부르세요. 빌레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서는 오늘날에도 학계에 온갖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서신을 썼다고 가정하거나 확립하여 빌레몬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봅시다. 적어도 대부분 학자들은 바울과 저자를 기각할 만한 심각한 주장을 실제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레몬서의 저자입니다.

빌레몬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빌레몬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구체적인 날짜를 생각합니다. 앞서 이 편지는 아마도 로마에서 쓰여졌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투옥된 연대는 서기 61년에서 63년 사이로 추정되며 , 현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대로 서기 CE는 기독교 시대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어딘가에 투옥되었을 것이라고 제안했는데, 이는 발음에 따라 카이사레아 또는 카이사레아일 수도 있고, 에베소일 수도 있으며, 그들은 날짜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투옥을 어떤 장소로 두든 , 그 연대는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5년 차이가 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신약성서가 50년에서 180년 사이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그렇게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고, 오, 시간이 흘렀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은 우리의 신약 연구의 더 쉬운 부분인데, 구약 동료들과는 달리, 그들은 사건과 사건의 기록 사이의 연대를 확립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기록 연대, 전통적인 연대, 그리고 일부 학자들이 어휘와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이슈에 근거한 연대라고 생각하는 연대. 신약성서는 그걸 통과합니다. 꽤 간단합니다.

1세기 중반에서 말. 이 특정 서한은 구체적으로 55, 68 사이에 최대 로 놓일 수 있습니다 .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더 좁고 , 제가 주장하듯이, 60에서 63 사이, 그 괄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취한다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이것을 썼을 것입니다. 바울은 저자임을 주장하고,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9장, 빌레몬서 19장에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썼다고 주장합니다. 빌레몬서에는 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제가 빌레몬서 1장이라고 말할 때, 저는 1절, 9절, 19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빌레몬에 대해 생각할 때, 또 다른 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어디에서 쓰여졌을까요? 이것은 학술적 토론을 위한 거의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아마도 이 편지는 콜로새에게 쓰여졌고, 콜로새에 있는 그의 집에 있는 특정 개인과 교회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와 콜로새서 사이의 관계를 항상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이 두 편지 사이의 내부 증거는 이것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 밀접한 편지라는 것을 실제로 시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유일한 아이러니는 한 사람은 바울이 쓴 것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고, 다른 학자들은 바울이 쓴 것에 대해 논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중 일부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빌레몬서와 콜로새서의 관계. 두 서신 모두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디모데와 바울은 이 책들의 저자로 소개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콜로새서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빌레몬서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두 서신의 인사말에 언급된 사람들은 겹칩니다. 사실, 몇 분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에프 라스, 마가, 아리스타르코스, 데마스, 루가도 콜로새서에서 볼 수 있듯이 빌레몬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빌레몬의 기록에 나오는 노예, 오네시모는 골로새서 4장 7-9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의 성당이 있고 매주 일요일에 200명이 교회에 오는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1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사람들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부유한 사람들이 클럽과 다양한 사회를 위한 모임을 가질 만큼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거나 제시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거실의 크기 때문에 한 번에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교회와 그들의 모임을 상상할 때, 우리는 한 번에 50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가정 교회와 더 큰 도시에 있는 여러 가정 교회를 상상합니다. 콜로새의 교회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우리의 주의를 끌 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빌레몬에 접근하거나 빌레몬의 내용을 듣는 교회는 골로새서도 접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교회 모임에서 소리 내어 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했다면, 이 두 서신을 연결하는 내적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두 서신의 서두를 보세요. 빌레몬서 1장과 골로새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은 실제로 바울이 그것을 쓰고 있으며, 그는 우리 형제 디모데와 함께 쓰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그것을 쓰고 있으며, 그는 우리 형제 디모데와 함께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대화에 큰 변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나중에 여기서부터 뭔가를 언급할 테니까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콜로새서에서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죄수로 소개한다는 생각을 붙잡아 두십시오. 계속해서 이 서신에서 유사한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또 다른 내적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마지막 인사에서 바울이 에바브라를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는 에바브라가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마가가 언급했고, 마가는 골로새서 4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이름인 아리스타르코스가 있습니다. 아리스타르코스는 골로새서 4장에서 목록에서 먼저 언급됩니다. 데마스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글쎄요, 데마스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를 보세요. 누가는 골로새서 4 장 1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이 그를 의사로 언급한 유일한 곳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에서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 중 하나는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두 교회가 모두 접할 수 있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 쓴 편지들. 다만 당신은 콜로새서가 누군가에 의해 쓰여졌다는 주장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로새서에 대해 논의할 때, 저는 바울이 콜로새서를 쓰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데 효과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빌레몬서의 저자가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라고 재빨리 지적했습니다.

만약 이런 밀접한 유사점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바울이 실제로 하나는 썼지만 다른 하나는 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너무 멍청해서 바울처럼 가장하고 그런 시간 틀 안에서 이런 모든 일을 하는 허구의 인물이 쓴 것을 가지고 앉아서, 오, 맞아요, 우리는 아마 바울이 썼을 거라고 믿어요. 바울이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1900년 후에, 우리는 실제로 바울이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세기에 그들은 속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머지 교회는 거의 1800년 동안 속아서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것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막 알아냈습니다.

증거와 주장이 진행되는 방식은 흥미롭고, 그것은 과소평가입니다. 현대적 평가에서, 두 서신 모두에서 바울의 저자에 대한 패턴과 인정이 증가하는 것을 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신을 콜로새서와 함께 나온 서신이자 바울이 쓴 서신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콜로새서를 쓴 사람과 같은 사람이 썼습니다. 이제, 이 편지는 빌레몬에게 보낸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인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일꾼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 동료 군인 아르킵보와 여러분의 집에 있는 교회에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은 누구일까요? 빌레몬은 이 특정 서신에서 알 수 있듯이 부자였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콜로새 시의 상류 계층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는 집에서 교회 모임을 열 수 있을 만큼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는 노예를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노예를 소유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개인의 부를 나타내는 특별한 지표는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제가 콜로새서에 대한 토론에서 언급했듯이, 노예 제도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도시에서는 인구의 30~35%가 노예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노예 제도는 인종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웃이 당신에게 엄청난 돈을 빚졌다면, 이웃은 빚을 갚기 위해 노예로 데려온 딸이나 아들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예로서의 자유를 사서 자신의 길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를 생각해보고 노예를 둔 사람들이 반드시 엄청나게 부유한 것은 아니라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테스트에서 우리가 발견한 다른 지표들은 빌레몬이 경제적으로 건전하거나 부유했음을 시사합니다. 그의 직업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여정을 바탕으로 그가 아마도 바울이 여행 중 한 번 접하게 된 사업가였을 것이라고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과 관련하여 바울이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람에게 호소하기 위해 자신의 레버리지 포인트 중 하나로 그것을 재빨리 언급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 편지에서 빌레몬이 그와 함께 사역을 했다는 점을 재빨리 지적합니다. 그는 빌레몬 1장과 빌레몬 17장에서 그를 동료 일꾼이자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리더십과 빌레몬의 리더십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빌레몬은 실제로 그의 집에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이는 그가 아마도 그의 집에서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배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것을 맥락에 맞춰 봅시다. 로마에서 감옥에 있던 바울은 콜로새에서 그의 전 개종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빌레몬입니다. 그는 아마도 사업가였겠지만, 바울과의 가까운 관계에서 그는 실제로 사역에서 바울과 나란히 일했고 심지어 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서도 일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사람에게 멀리 떨어진 컨설턴트였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실제로 새롭게 하고 바울이 이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가졌다는 요점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토론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텍스트로 넘어가기 전에 이 편지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하고 싶습니다.

현대 학계에서는 논쟁이 있었고, 그 논쟁은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불과 2년 전, 저는 국제 회의에서 성서 문헌 연구소에서 이 특정 주제에 대한 주요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는 누구였을까요? 글쎄요, 그 장소나 오네시모의 역할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은 그를 도망친 노예로 보는 것입니다. Fugivitus 는 우리가 때때로 사용하는 라틴어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친 노예였다고 말하는 것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고, 오네시모는 어떻게든 도망칠 기회를 얻었고, 그냥 달려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이 그를 붙잡을 수 없도록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재빨리 움직이고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모든 것을 하는 반항적인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가 아직 밖에 있을 때, 그는 그의 주인이 폴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아마도 그는 어딘가에서 그의 이름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남자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바울과 접촉했을 것이고, 바울은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도망친 반항적인 노예는 자신의 행동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편지 후반에 말했듯이, 그는 여러 면에서 바울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오네시모에 대한 한 가지 해석입니다.

오네시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학술적 주장, 두 번째 주장은 실제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라틴어 표현을 사용하여 서로를 감동시키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에 대한 라틴어 표현은 amicus domini입니다.

즉, 그는 도망친 노예였지만 영원히 도망칠 의도로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아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와서 중재해 줄 의도로 도망칠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 경우와 이전 경우의 차이를 보십니까? 이 경우 그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좋은 도망노예였습니다. 주인을 잃고 도망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인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이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 도망가서 주인과 이야기해 달라고 간청하고 주인이 그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편지를 그런 관점에서 읽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큰 손실이 될 나쁜 놈으로 묘사되지 않고, 주인이 그를 보자마자 벌을 받을 만한 놈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 견해에 대해 내가 몇몇 동료들과 논쟁할 때 주목하고 싶은 한 가지는 오네시모만이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안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의 주인이 관련해서 볼 때, 그는 여전히 그가 도망쳤다는 첫 번째 견해처럼 도망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그가 누군가에게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도망쳤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오네시모 측의 의도 공개이지 빌레몬의 관점이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편지를 받는 방식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역학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독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독서에서는 잠깐만요, 그 남자는 도망친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노예였지만, 사실 그 남자는 주인 필레몬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우러 보낸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도운 후, 바울은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빌레몬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바울에게 충성스럽고, 충실하고, 훌륭했던 선한 사람이며, 바울의 가장 깊은 관심을 마음에 두고, 감옥에 있는 동안 내 친구 바울을 돕기 위해 누군가를 데려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노예 중 한 명인 오네시모를 보내서, 아마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바울에게 돌아와서 선하게 지내고, 감옥에서 그를 섬기고 나중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폴이 돌아오는 동안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을 내게 보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 사람을 맞이해 주세요.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당신의 노예들의 다른 계급들 사이에서 승진시켜 주세요. 그를 잘 대하세요. 훌륭하게 대하세요.

이 시험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빌레몬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바울이 그를 대신하여 호소하는 방식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 육체적으로 돌아오는 모습,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떨지에 대한 당신의 상상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가 중재자를 찾으러 갔다면, 그의 주인은 그가 중재자를 찾으러 들어갔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인이 보냈다면, 그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올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침실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서 노예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걸 상상하면 온전한 시나리오가 됩니다. 한 장의 시험이 실제로 이 모든 주장을 어떻게든 성립시킬 수 있다는 것이 난제라고 말해야겠습니다. 저는 빌레몬서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로 읽고, 도망친 노예를 대신하여 호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도망친 노예가 중재자의 도움을 구해 협상을 하든, 영원히 도망치든, 편지를 받은 사람은 부주의했고 도망친 노예의 의도를 전혀 몰랐습니다. 도망친 노예는 오는 것을 두려워해야 했고, 바라건대, 바라건대, 바라건대, 바라건대, 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먼저 콜로새서를 읽을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 편지들이 모두 동시에 왔지만, 그들은 먼저 콜로새서를 읽을 기회를 얻었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언급하는 것을 듣고 실제로 그를 거기에 두고 빌레몬이 오!그게 내 노예야?그가 바울과 무슨 짓을 하는 거지?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최소한 땅을 조금 준비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오네시모가 겁에 질려 돌아와서 주인이 바지에 오줌을 누려고 하는 것을 보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편지를 그런 식으로 읽었고, 그 때문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도망친 사람이 이제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고 오네시모가 돌아오는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주인이 적어도 이 편지를 받는다면, 그가 그를 때리거나 잔인한 대우를 하기 전에 먼저 편지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은 느긋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일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볼 것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보내어 그를 도우라고 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바울이 어느 정도의 해방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노예를 풀어주고 그를 풀어주기 위해 협상해야 한다고 말하려고 하며, 그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이 구절들에 호소하고, 저는 여러분이 그것이 말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는 "전에 그는 너희에게 쓸모없었으나, 이제는 너희와 나에게 쓸모가 있게 되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심장과도 같은 그를 당신께 돌려보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복음을 위해 쇠사슬에 묶인 동안 당신 대신 나를 도울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호의가 강요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잠시 당신과 헤어진 이유는 당신이 그를 영원히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16절을 주목하십시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서 노예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는 나에게 매우 소중하지만 당신에게는 더욱 소중합니다. 소중하고 더 소중하다고 번역된 그 단어는 아가피토의 사랑하는 사람을 동료 인간으로서, 그리고 주님 안의 형제로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은 이 시험을 골라서 이것이 실제로 바울이 오네시모의 해방을 원한다는 것을 주장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 시험에서 전혀 명확하지 않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당신과 헤어졌다고 말했을 때, 그는 당신이 그를 어떤 이유로 나에게 보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5절의 그 주변의 단서가 빌레몬이 기꺼이 앉아서 로마에서 바울에게 그의 훌륭한 사절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앞서 제안했던 방식으로 그것을 읽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이 편지에 대한 또 다른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주의를 끌고 싶습니다.

웃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 머리를 긁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학자들도 이런 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오네시모는 사실 빌레몬의 노예였고, 빌레몬은 기독교인이지만 동성애적 파트너로서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즐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는 자신이 매우 잘하는 노예들을 생각했고, 저는 이 노예가 바울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오네시모를 보내 바울도 그와 성적 관계를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동성애 논쟁에 대해, 사실, 그렇지 않다면 바울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이유는 빌레몬이 그를 동성애적 파트너로서 성적으로 학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가끔 제기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

학자들은 이런 것들 뒤에 있는 동료들의 이름을 숨기려는 습관이 있는데, 그들이 마음을 바꿀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명은 언급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노예 주인이 노예를 성적으로 사용한 것은 고대 세계에서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예 주인은 노예를 성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때때로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성과 남성 노예들은 주인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주인들이 손님을 대접하려고 실제로 노예들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풍자 및 이런 종류의 주제에 대한 모든 사람을 조롱하려는 모든 종류의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빌레몬과 관련하여 이 주제에 대한 최근 기사 중 하나는 Joseph A. Markle이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에 실린 The Usefulness of an Onesimus The Sexual Use of Slaves and Paul's Letter to Philemon입니다.

여기서 필레몬 마클의 배경에서 노예의 성적 이용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학자들이 이 짧은 서신에 대한 충분한 맥락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 노예의 성적 이용은 이 편지의 계기에 대한 다양한 가설에 그늘과 뉘앙스를 더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법적, 사회적, 문학적, 도덕적 배경 측면에서, 이 노예 제도의 조건은 이 편지의 해석을 중심으로 모인 분노한 도망 노예, 사절, 견습 노예, 제3자 중재 가설에 의해 제기된 조건과 거의 같은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적한 세 가지 견해를 모두 취한다면, 이 견해도 추가해야 합니다.

증거는 무엇인가? 왜 그렇게 제안해야 하는가? 글쎄, 증거는 노예 주인이 노예를 사용한 바로 그 이유를 지적한다.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대중 문화와 이상적인 미덕은 하나가 아니라는 점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한다. 철학자와 도덕주의자들은 사회 와 품위 있는 사람들에게 미덕이 무엇인지 주장할 것이다 .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대중 문화에서 실천되는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동성애 노예가 동성애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철학자들이 그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된 고귀한 사람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노예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명확한 자유를 부여받았는지에 대해 더 정당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이클은 실제로 이러한 테스트 중 일부를 우리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무소니우스 루퍼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이고, 철학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세요. 이 범주에는 자신의 노예 하녀와 관계를 맺은 남자가 속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비난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주인은 노예를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노예와 관계를 맺는 것이 부끄럽거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 않다면, 특히 그녀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 노예일 경우, 주인은 아내가 남성 노예와 관계를 맺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보세요.

합법적인 남편이 있는 여성이 노예와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이 없는 여성이 노예와 관계를 맺는다면 완전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요? 무소니우스는 사회에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이런 종류의 시험을 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보면, 이것이 매우 흔하고 만연해서 토론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요? Herodas 에서 , Bithyna 나는 노예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사용하세요.

다시 말해서, 노예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무소니우스가 그렇게 말했죠, 그렇죠, 다들 알죠. 호레이스, 이제 진짜로, 당신의 진실이 시험의 일부일 때, 당신은 황금 잔을 요구하지 않죠? 당신이 배고프고 공작새와 가자미 외에는 모든 것에 코를 찡그리지 않을 때, 그렇죠? 당신의 사타구니가 덤불 이 되고 , 바로 뛰어들 수 있는 노예 소녀나 집에서 키운 노예 소년이 가까이에 있을 때, 당신은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선호하지 않죠? 저는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노예를 성적으로 지배합니다. 호라티우스의 풍자에서, 나는 노예를 언급하면서 쉽고 얻을 수 있는 섹스를 좋아합니다. 마이클과 같은 학자가 노예의 성관계를 논의에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증거를 지적하면서, 실제로 당신에게, 내 생각에 이것을 대화에 끌어들이는 것은 지나친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알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편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런 면에서 별로 없는 듯합니다. 빌레몬 오네시모와 노예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주인이 노예를 성적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약성경에서 노예-주인 관계는 노예의 이름을 홍보하거나 노예의 성적 사용을 고발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주장이 꽤 빠르게 사라지고 있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노예를 성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빌레몬도 그것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다루는 우리의 논의에서 합리적인 추측을 하기 위해 그것을 끌어들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제안합니다.

저는 동성애자로서 성적 지향을 선언한 친구, 친척, 형제 자매에 대한 모든 정직함, 배려,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가끔 학자들이 아주 가까운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주장을 시도하는 함정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서양 문명에서 정기적으로 다루는 일부 문제의 심각성을 어떤 식으로든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부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 즉 동성애 형제 자매, 친구, 이웃, 친척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에게 확장되는 명령이라고 제안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그 사랑과 보살핌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으로 되돌려 놓고 언급이 없는 부분을 관련 문제로 만들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노예의 성적 사용에 대한 이 특정 주장은 심각한 대화에서 다루기에는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계에 등장했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배경 문제 중 일부를 살펴보았으니 편지 자체로 넘어가겠습니다. 편지 서두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모든 서신 중에서 그가 사도로서 자신을 소개하지 않은 유일한 서신은 마케도니아 친구들에게 쓴 서신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가 마케도니아 친구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들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의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대화에서 자신의 강한 권위감을 표현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기 빌레몬서에서, 도망친 노예가 집으로 돌아오는 민감한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면서 부탁을 하려는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가 명함을 너무 빨리 꺼내면 , 그는 싸움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주저할 것입니다.

공동 저자는 디모데이고, 이 편지는 빌레몬에게만 보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보내졌습니다. 사실, 이 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우리의 자매 아빌 과 , 우리의 동료 군인 아르킵보와 당신 집에 있는 교회에. 우리는 종종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만 쓴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압박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압박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빌레몬, 저는 개인적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사와 그 모든 것의 서두 발언을 마치자마자 그는 모든 것을 단수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단수 주소로 만들고, 빌레몬만 만듭니다.

나는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당신에게 호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당신이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편지는 또한 당신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오, 무슨 일이야? 당신을 기독교 지도자로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에게 쓴 내용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리고 싶어. 그것이 압박이라고 생각해? 오, 그래. 오, 그래.

주교는 본당 목사에게 편지를 써서, 목사님,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모든 일을 저지른 완고한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저에게 왔습니다. 그는 매우, 매우 훌륭하고 저는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를 잘 돌봐주세요. 그는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를 꼭 껴안고, 돌봐주고, 교회에서 산책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여러분 개인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가 제가 여러분에게 쓴 내용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죠. 오, 맞아요. 폴이에요.

그리고 폴이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보세요. 폴은 영리합니다. 더글러스 무에 관해서는, 저는 이 편지에서 더글러스의 논의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있어서 그에게 크게 의존합니다. 더글러스 무는 바울의 투옥이 복음을 위해 자신이 한 희생을 미묘하게 상기시켜 주었으며, 빌레몬이 그의 요청을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비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사도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내가 죄수라고 말할 것입니다. 빌레몬, 너는 주님 안에서 내 아기였고, 나는 너를 지도했습니다.

이제 내가 감옥에 있고 , 어느 순간, 그는 내가 늙은이라고 말할 거야. 당신의 호의가 필요해, 부탁해. 양심에 대해 생각해.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고 그가 당신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바울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4절로 넘어가기 전에, 이 편지에 언급된 핵심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이 인사를 받습니다. 우리는 또한 아비아라는 이름을 발견하는데, 학자들은 아비아가 실제로 빌레몬의 아내 또는 자매라고 믿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이 동료 군인인 아르키푸스로 언급됩니다.

그는 빌레몬의 아들로 복음의 목사이거나 둘 다일 수 있다고 제안됩니다. 빌레몬의 아들로 복음의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름이 빌레몬의 집안 식구라는 것이 더욱 말이 되므로 바울이 그것을 마치자마자 그는 당신 집에서 모이는 교회로 향할 것입니다.

그의 감사절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감사를 표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당신을 기억할 때마다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당신의 사랑과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믿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나눔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온전히 아는 데 효과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형제여, 나는 여러분의 사랑에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의 핵심은 그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강조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사랑과 믿음이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빠르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번역에서 약간의 변경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을 향한 그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의 믿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읽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8절에서 계속 말하듯이, 그는 잠정적인 호소를 하지만 요점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는 그에 따라 말합니다. 비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여 너희에게 요구되는 것을 하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기억하세요, 그는 내가 사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담대하여 너희에게 요구되는 것을 묻지만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오, 당신은 사람들을 사랑해요. 제가 그걸 언급했어요. 당신도 알죠.

사랑을 위해 나는 당신에게 호소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나는 바울이고, 늙은 사람이고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사람이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내가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당신에게 호소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당신이 오네시모라면 편지를 처음 2분 동안 읽고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알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 바울이 들어와서 관계를 강조하는 그의 호소를 펼칠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관계입니다. 그는 자신과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근거로 호소할 것입니다. 그는 빌레몬 오네시모의 주인과의 바울의 관계를 근거로 호소할 것이며 ,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호소는 매우,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를 살펴보죠.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 그는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전 노예는 유용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유용했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도 유용했습니다. 바울은 그를 사랑하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바울의 아들이며, 매우 섹시합니다. 빌레몬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 바울은 이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고, 그는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이 호소의 기초를 형성하는 다음 관계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입니다. 빌레몬은 또한 그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잊었다면, 그들은 모두 그의 영적 자녀입니다. 빌레몬은 자신이 사역에서 그와 파트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바울과 자신의 신념을 공유했어야 할 목사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동정심을 호소할 것입니다. 빌레몬,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당신에게 부탁을 하는 늙은이입니다.

나는 죄수입니다. 나는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나는 파트너이고, 나는 형제입니다.

참고: 오네시모는 형제였습니다. 필레몬은 형제이고, 오네시모는 아들입니다. 필레몬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형제입니다.

당신들은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저는 당신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을 들어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 바울은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것에 대해 그의 주의를 끌고 싶어합니다.

오네시모는 과거에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과거에 당신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마도 당신을 돈으로 사기했을 것입니다.

그는 말한다, 내 주머니에서 갚을게 그는 이제 바울에게 유용하다. 바울은 그가 빌레몬에게도 유용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가 이제 주 안에서 빌레몬의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당신은 그저 형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미워하는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형제는 다투기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사랑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사실, 16절에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서, 특히 나에게는 그렇지만, 육신과 주님 안에서 당신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바울은 당신이 여기 형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해야 할 형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그를 껴안고 키스하고 껴안아주세요. 글쎄요, 이 노예는 그가 매를 맞을 만하거나, 매를 맞거나, 그가 한 일에 대한 어떤 형태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강한 기대와 함께 와야 합니다.

바울은 그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략적 호소는 이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필레몬의 동정심을 호소함으로써 그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한 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적을 매우 명확하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목적과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17절에서, 당신이 나를 당신의 동료로 여긴다면, 오네시모를 그가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하십시오. 그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계좌에 청구하십시오.

나, 폴은 내 손으로 이 글을 쓴다. 내가 갚을 것이다.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자신에게도 빚진 것이다.

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당신에게서 약간의 유익을 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더 많은 압력, 21절. 당신의 순종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쨌든 나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동시에, 나를 위해 손님 방을 준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기도를 통해 내가 은혜롭게 당신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오네시모와의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기 위해 당신을 방문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료 갇힌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나의 동료 일꾼인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도 인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의 영과 함께합니다. 돌아온 종이 오면서 바울은 빌레몬이 형제를 영접하기를 호소합니다. 이러한 연합의 정신, 이러한 용서와 화해의 정신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특정 서신의 적용 영역에서 용서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해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압력이 필요했지만, 빌레몬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이런 형태의 편지를 통해 오네시모가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졌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 대한 이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당신의 이해에 약간의 빛을 비추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 편지를 당신의 시간에 읽고 더 자세히 읽어보기를 촉구합니다. 흥미진진합니다. 당신이 설교자라면, 이 편지에서 설교하세요.

그것으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으세요. 저는 이 편지에 대해 그렇게 많이 듣지 못합니다. 저는 이 편지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대중의 자리에서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즐겁게 읽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 시리즈에서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감옥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Dan Darko 박사입니다. 이것은 빌레몬서에 대한 세션 17입니다.